

제415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8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추가)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추가)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6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6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을 시급히 논의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과 차관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장관 등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회를 정상화시켜 줄 것을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오늘 다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토부장관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염태영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국토위에 소속된 염태영입니다.

지난번 제1차 회의 때 제가 지방 출장 일정이 있어서 부득불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할 것을 다짐하면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또 함께하게 되는 영광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인사 마칩니다.

○**위원장 맹성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차관이 출석하지 않아서 오늘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4분)

○**위원장 맹성규** 그리고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2항부터 제4항까지 추가적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률안 개정 등 입법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6월 25일 오전 11시에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진석 위원** 안건 의결하기 전에 각각 위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안건을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 맹성규** 좋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문진석 위원** 제가 발언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감사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목숨을 끊은 사망자만 8명이고 전국적으로 피해자만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권 여당 역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 법률상 권한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면 된다는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일하기 싫다면 야당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국정운영을 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을 위해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가 되어 갑니다. 전국의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와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떼쓰고 그만 눈치 보고 일하십시오.

우리 민주당과 국토위 위원들은 지난 3주간 정부의 피해 대책안을 검토하고 피해자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피해자 지원, 정부부처 전반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전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25일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오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날인데요 정부도 여당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착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처음 발표한 게 2022년 8월이고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만 벌써 여덟 분입니다. 모두 20대, 30대, 40대 피해자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께서 유서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꼭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절망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40대 남성분은 선구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그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1일에 목숨을 끊은 38세의 여덟 번째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피해자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고 절망감에 새벽에 목숨을 끊은 그날, 같은 날 오후에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하루만 빨랐다면 이분은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덟 분의 공통점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부 대책에 희망을 걸었던 분들이고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대책에 희망을 걸고 있는 2만 명, 3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국토위 회의만 그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절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상임위원장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면서 불참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정부 역시도 여당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동반 결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정한 정치를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너무나 죄송하고, 그분들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회의를 보시고 실망하실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정부 여당은 두말하지 말고 국회 회의장에 들어와서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구제 법안을 심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라면 이 무거운 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저는 자료 요청까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인 국토부장관 그리고 차관이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법 제121조 3항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독 이번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안인데 지난 1월만 해도 박상우 장관하고 백원국 차관이 전체회의에 불출석하면서, 그때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당시 김민기 국토위원장께 제출했던 사유서가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원장을 속인 사안이 돼서 한때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차관들의 불출석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10년간 개최된 국토위 전체회의의 국토부 장차관들 출석 여부를 명시하고 불출석 시의 그 사유와 대참자를 정리해서 의원실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는 특별히 좀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토부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요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요구서를 꼭 발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일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2에 따라서 관계자 징계 등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장님께서 부디 요구서를 발부해 주셔서 자료제출에 따라 저희가 향후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질타하고 시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저희가 조금 이따 논의를 할 텐데요. 3항에 자료제출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항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청주시흥덕구 이연희 위원입니다.

여당과 정부의 상임위 불참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는 그 법적 문제 외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위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과 민생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선적인 현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중점 변경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재추진하는 것도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전 장관의 느닷없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로 인한 서울시민과 양평군민 등 수도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6·7·8월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오송 참사와 같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에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지하차도의 안전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 주택 미분양 증가, 그다음에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 공사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 근로자 고용 증가 대책 등 건설경기 악화 대책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이 이러한 시급한 상황인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가 국회에 출석해서 국토위가 당면한 현안과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일단 하나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증인 신청이 추가로 좀 더 가능합니까?

○위원장 맹성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지요?

○윤종오 위원 다음 안건에서, 네 번째 안건에 증인 출석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가로 더 증인을 하실 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윤종오 위원 일단 금융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한테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안 오더라도 최소한 금융위원회는 위원장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 금융감독원까지 한다면 이복현 원장까지 추가할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좀 드리구요.

정부가 5월 27일 날 전세사기 대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 그때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런 사항들을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내놓고 하셨는데 전혀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엇그저께 KBS 인터뷰에도 나오셨어요. 나와 가지고 종부세, 임대차 2법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와서 제대로 발표하고 자기들 입장도 견지해야 될 분이, 지금 피해자들이 절규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면서 장관을 제대로 출석시킬 수 있는 법적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추가하고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증인 관련해서, 지금 그 내용을 간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간사가 혼자밖에 안 계셔 가지고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위원장 맹성규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윤종오 위원 저하고 협의 좀 하십시다.

○문진석 위원 위원님하고도 상의할게요.

○윤종오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추가적으로 말씀이 없으시면 청문회 실시계획서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28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요구서는 요구기관에 오늘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서류제출요구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29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은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등 13명으로 하며 참고인은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윤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융위원회 위원장 건은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굳이 위원장이, 저희가 국토위원회 청문회고 기재부장관이 출

석을 하는데 위원장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말씀을 주시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 기재부장관은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맹성규 예, 기재부장관.

○윤종오 위원 일단 예산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을 테고, 이것이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피해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 보시고, 저는 최소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문진석 위원 저희 잠깐 정회하고 의결하시지요. 5분만 정회해 주시지요.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요.

○문진석 위원 제가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서.

○위원장 맹성규 예, 잠깐 말씀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종오 위원님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증인 명단에서 금융정책국장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금융정책국장은 제외하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마치기 전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기왕 위원님.

○북기왕 위원 충남 아산갑 북기왕입니다.

아마 오늘 회의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 마음이 다 마찬가지로일 텐데,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민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22대 국회가 앞장서서 뛰는 모습, 이것이 상징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22대 국회가 얼마나 민심과 함께 또 민생과 함께 일을 할지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얼마나 더 우리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야 할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겠지만 저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일부 소위까지 구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국토위도 지금 현재 최소한 법안을 다루는 소위 정도는 정상화시켜서 가동시키고, 물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제출돼 있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소위에서 다루고 하는 상임위를 정상화시키는 절차를 저는 서두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오늘 회의에 참석하면서 해 봤습니다.

우리 국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일부 가동 가능한 소위까지도 구성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복기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소위 구성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간사께서는 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법안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라도 그냥……

○**문진석 위원** 사실은 법안소위는 야당, 지금 상임위 전체 구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 주고 있잖아요. 최소한 일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복기왕 위원** 그것은 일단 저의 의견이고 공식적으로는 나중에……

○**위원장 맹성규**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지난 회의 때 우리 국토위에서 일회용품 비치할 줄여 나가자는 제안을 드렸었고 테이블에 비치된 생수병부터 일단 없애 나가자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행정실에서 일회용 생수병을 비치하지 않으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텀블러를 지참해 주셨습니다. 행정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부터 녹색국회의 흐름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3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신청이유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6. 25.(화)	피해지원 관련 주무부처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피해 지원 관련(지원 예산 등)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피해자 인정 및 경공매 유예 등 관련 주무부처 실무자
이형근	대법원 사법지원실장		경공매 유예 등 관련 주무부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세 제도 및 부실 대출 관련 정책 담당기관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부원장		금융권 대출 관련 관리감독기관
진현환	국토교통부제1차관		피해지원 관련 주무부처 실무 총괄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피해지원 관련 주무부처 실무 총괄 실장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피해지원 내용 중 매입임대 이행강제금 완화 관련 부서 총괄 실장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피해지원단 실무 총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피해지원방안 중 LH매입임대 관련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전세자금보증보험 운용사 사장, 주택도시기금 운용사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전세사기 관련 부서

참고인(7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신청이유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6. 25.(화)	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의견 청취
이재호	경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의견 청취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의견 청취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의견 청취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지원 시민단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전세사기 피해지원 시민단체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시민단체

○출석 위원(19인)

김기표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염태영
윤종균 윤종오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준호 한준호 황운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장지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3)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2.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5)

이상 5건 6월 13일 회부됨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1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9)

이상 3건 6월 14일 회부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6. 1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1)

이상 5건 6월 1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6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1.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3)

6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9)

6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